

한 겨울의 이벤트와 화장실



에세이스트·일본화장실협회 회원 야마시타 토오루(山下 亨)

지역의 활성화 사업이 성행한 일본에서는 춘추동, 전국 각지에서 수만명 규모의 관객이 참가하여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객이 집중하여 체제형으로 이벤트가 개최되려면, 당연히 '화장실에 의한 관광객의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시됩니다. 정상인의 빈번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대안 외에 신체장애자나 고령자에 대한 대안, 유아를 데리고온 여성에 대한 대안 등,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 여부가 이벤트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을 경험한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관객에 대한 화장실 대책은 마치 재수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열심히 몰두하는 주체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정·촌등 공적인 기관이 주체하는 시민의 꽃축제, 불꽃대회, 여름축제 등의 지역 이벤트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공중화장실은 순서를 기다리는 줄이 생기고, 특히 여성용 화장실은 50여명의 긴줄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공중화장실 시설은 대규모 이벤트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짓지않는 이상 용량부족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행사장의 몇 곳에 공사용 가설 화장실(간이화장실)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건물을 수동 설치해 놓았을 뿐 세면대 설비도 없고, '사용하고 싶으면 이러한 화장실이라도 사용하라'는 식의 설치 형태가 많고, 더욱이 담당자도 없는 실내에는 쓰레기가 널려져있어 청소가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접대 정신이 제로

결과적으로 불친절보다 더한 실례이지요. 이벤트 때야말로 예측관객 수와 맞는 수의 쾌적한 가설 화장실 대비가 중요합니다. 물론 가설 화장실 설비의 쾌적화 방안모색도 필요합니다만.... 다음에 소개할 이벤트의 화장실은 접대정신이 충만한 가설화장실과 관련하여 매우 좋은 케이스이다.

세기를 넘는 이벤트의 화장실

지난호의 '일본 정월과 화장실'에서 간단하게 소개했던 일본 해맞이 구경 이벤트인 「세기를 넘는 이벤트 銚子에서」에는, 동경에서 전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銚子市(인구 약 8만)의 태평양에 접한 기미가하마에서 개최되어, 연간



▲ 시범 설치된 유료화장실 - 1회 사용료가 100엔인 화장실로 사용상의 불만은 없으며 돈을 지불함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화장실문화라는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하여, 한·일 양국의 우호교류라는 형태의 큰 교류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일본의 화장실을 소개합니다.

약 15만명의 남녀노소가 참가하였습니다. 12월 31일 21시부터 이벤트가 시작되어, 해안에 설치되어진 무대에는 일본 북 연주, 재즈밴드 연주, 라이브 등이 밤새 연주되고, 해변가에 늘어선 많은 포장마차에서는 닭구이, 어묵, 단 팔죽 등이 성황리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밤새 비바람이 계속 불어 대형 텐트가 초만원이 되고, 난방이 들어오는 대형 텐트에는 밤새워 일출을 기다리는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1월 1일 오전 4시경이 되어 풍향이 바뀌며 비가 그치고 비구름은 없어졌지만, 역시 정월의 일출은 해상에 덮힌 구름에 가려져 예정된 6시 46분에는 보지 못하고 7시가 지나서야 겨우 햇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출은 어떠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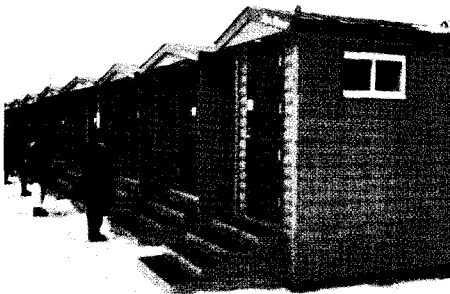
다시, 화장실 이야기입니다만, 해안에는 공중화장실이 2동 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실행 위원회가 76실의 가설화장실을 임시로 설치 운영(가설화장실 업자로부터 임대)하였습니다. 그중 18실은 유료화장실(100엔)로 하고, 나머지는 무료화장실로 하였습니다. 팜프렛에도 화장실의 장소를 명시해 놓고 여기저기에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화장실 홍보에 철저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 자원봉사자인 젊은 남녀가 요금징수 및 안내 등을 하는 한편, 항상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를 해놓았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사용했던 사람에게 소감을 묻자 '화장실 안은 넓고, 깨끗하였으며 냄새도 없었다.' '자원봉사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였다' 등 화장실 사용상의 불만은 없으며 또한, 요금에 대해서도 '100엔 정도는 지불하여도 괜찮다'고 말하였다. 돈을 지불함에 저항감은 조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무료로 하는 것이 좋지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료화장실의 평판은 매우 좋았습니다. 더구나 무료화장실(남녀겸용/장애자용도 설치)은 공중화장실(2개소) 옆의 공터와 주차장에 설치 운영되어 항상 4~5명이 줄을 설 정도로 사용빈도가 높았지만, 종이 등 쓰레기도 많지 않아 매너의 점에서는 의외로 우수하였다.



은 조금밖에 없었다.

외부 기온이 영하 11°C의 눈축제에서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화장실이 무엇보다 「접대정신의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행사진행을 위해 임시로 간이화장실 30동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기를 넘는 이벤트」라 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는 화장실 매너도 좋아지는 것인지?

삿포로 눈 축제의 화장실

삿포로(북해도)시에서는 매년 2월초에 7일간 「삿포로 눈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 눈 축제는 삿포로의 오오도리 공원과 마꼬마나이 2곳의 행사장에 북해도에 있는 양질의 눈을 모아, 이것을 사용하여 참가팀이 마스크트나 괴물 등을 만들어 전시하는 것으로, 청천 대낮의 설경, 라이트 업된 밤의 설경이 나름대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약 220만 명의 관광객들이 구경을 오며, 삿포로라고 하는 북극 한겨울의 한때를 즐기는 이벤트입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올해로 52회째가 되는 이 이벤트의 경제 파급 효과는 매년 약 200억엔이나 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설국의 은백(銀白) 이벤트에는 가족동반, 연인들이나 젊은 단체 외에, 휠체어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까지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장실 대책입니다.

오오도리 공원 행사장에는 공설 공원화장실이 5개소 있으며, 모두 난방시설과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쾌적합니다만, 마꼬마나이 행사장에는 그러한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삿포로 눈축제 실행위원회는 이 눈축제의 마꼬마나이 행사장 2개소에 특별한 화장실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어디까지나 무료화장실입니다.)

1개소에는 ‘하수도 맨홀 직결방식의 가설 화장실’ 30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더욱이 다른 장소에는 ‘자기완결형(저류식)의 가설 화장실’이 설치된 로그하우스 30동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사진 3)

이 화장실의 모든 실내에는 난방설비가 붙어있으며 남녀 대변용 릫은 넓고 또한 온수 세정기가 붙은 서양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세면설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따뜻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좋은 평이었습니다.

외부 기온이 영하 11도의 눈 축제에서는 이러한 난방이 붙은 화장실이 무엇보다 ‘접대의 화장실’이라 할 것입니다.